

# 북구청 '용두교' 보수공사 임시도로 없어 통행 불편

### 한 달간 차량 통제...식당가 "손님 절반 줄었다" 울상

광주시 북구청이 다리 보수공사를 하면서 임시도로를 개설치 않아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북구청은 폭 8m·연장 200m의 왕복 2차선 '용두교' 보수공사(신축 이음 장치 및 날개벽)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12월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차량을 전면 통제했다.

구청 측은 그러나 다리 옆에 임시 도로를 만들지 않고 공사에 착수, 광산구 비아동과 대촌·오룡동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건국동 용두마을 172세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용두교'를 통행할 땐 대촌·오룡동 등에서 마을까지 왕복 1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멀리 떨어진 '첨단대교'와 '용산교'를 이용할 땐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다리 공사로 교통이 통제되면서 이 마을 식당가는 절반 이상 손님이 줄어드는 등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지금껏 용두마을 식당을 찾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호남본부·삼성전자 제2공장·엘코 테크놀로지 등 직원들도 점심시간 등에 시간 부족을 이유로 발길을 돌렸다.

두부를 파는 O식당은 종전 하루 평균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공사가 시작되면서 50%가량 감소했으며, C식당은 150만원에서 70만원(53.3%)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따라서 ▲'용두교'에 대한 전면교통 통제를 해제하고 부분통제 하거나 임시도로를 개설할 것 ▲식당 매출 감소 피해 보상 등을 구청 측에 요구하고 있다.

북구청 측은 그러나 다리가 노후하고 비좁아 부분통제를 할 경우 사고 위험성이 높고, 우회도로를 내기에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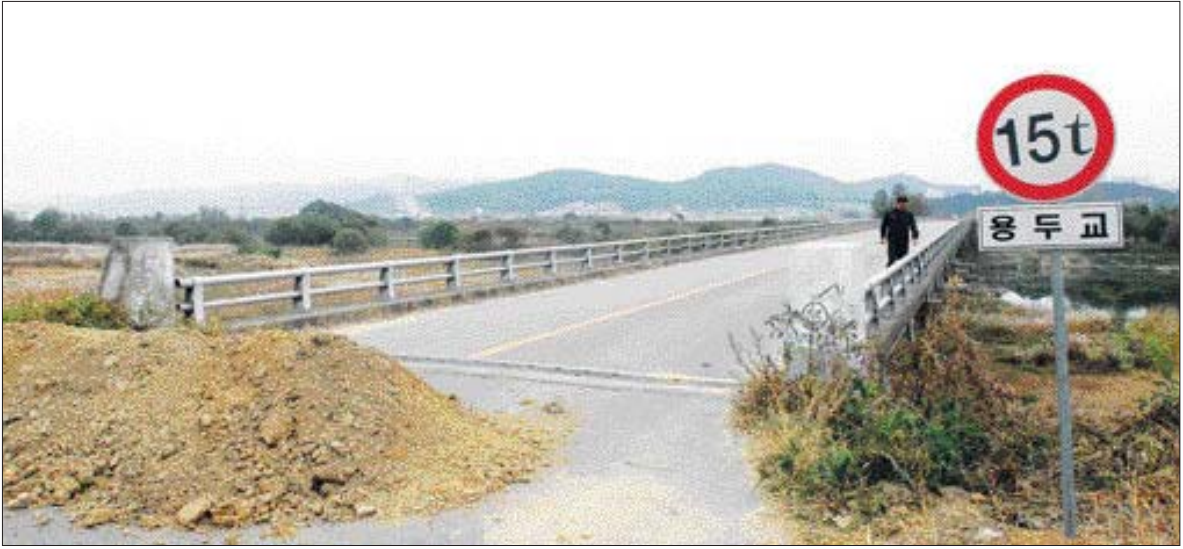
용두마을 O식당 주인은 "차량 통행을 막기 전에는 점심·저녁때 수백여 명의 손님이 몰렸지만 교통통제가

시작된 지난 일주일 이후 파리만 날렸다"며 "다리 노후화로 인한 사고 위험성 때문에 공사를 한다지만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주민들에게 피해만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용두교는 1975년 시설한 노후 교량이라서 시설의 내구성과 통행 차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수공사에 착수한 것"이라며 "최대한 공사기간을 줄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신축 이음=온도 변화·건조 수축으로 발생하는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다리와 다리 사이에 설치하는 장치.  
▲날개벽=다리를 받치는 기둥에 붙여 놓은 콘크리트 벽체.



지난달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한 달여 동안 전면통제에 들어간 광주시 북구 건국동 '용두교'. 출퇴근길과 식당 영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다리를 부분통제하거나 임시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북구청에 요구하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문화수도 걸맞는 교통체계 갖추려면

### “군사공항 이전, 철도·고속도 확충해야”

#### 최동호 광주대 교수 주장

광주시가 문화중심도시로 발전하려면 군사공항을 이전하고 철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을 보다 확충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기권한 보행자 도로 ▲잘 연계된 대중교통체계 ▲보다 넓은 주차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호 광주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는 9~10일 광주대가 개

최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활성화와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방안 학술대회'에 앞서 6일 배포한 '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한 광주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광주공항은 운송기의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크고 도시발전에도 지장을 초래하므로 군사공항 이전이 불가피하다"며 "무안국제공항으로 국제선 기능

이 이전되면 광주공항과 인천공항간 직항로 개설 등 문화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주공항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호남고속철도 신선 건설로 광주~수원권 1시간 30분거리 유지 ▲고창~장성간 서해안 고속도로 조기연결 ▲88고속도로 도로선형 개선과 확장 등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봤다.

최교수는 이와 함께 "광주시는 보

행자 조례를 제정했으나 투자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보행자들이 아시아문화전당에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금남로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와 ▲마을버스~ 시내버스~지하철 등의 효과적인 연계 ▲담양·화순·나주 등 인근도시와 대동교통연계체계 구축 ▲봉선·방림·우산·오치·무안·염주지구에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 등도 요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전략(최창호 전남대 교수)', '광주대중교통체계 개선방향'(임영길 호남대 교수) 등 100여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광주, 2013 U대회 유치 '스타트'

### 내년 1월 100명 규모 유치위 발족 “문화·인권·평화의 축제로 치른다”

광주시가 '201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의향을 제출한 데 이어 대규모 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광주시는 6일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위한 '유치총합계 획서'(Bid File)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이번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세계 대학생들의 '만남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문화·인권·평화축제로 치

르겠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광주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임을 내세워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집행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또 12월 중에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는 대로, 전국 단위 유치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내년 1월에는 정·관계, 체육계, 경제계,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100명 규모의 유치위원회를 발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유치위원회에 정무부시장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사무국을 만들어, 유치활동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은 내년 5월말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재 광주 외에 러시아 과잔, 캐나다의 에드몬톤·퀘벡, 폴란드 포즈난, 스페인의 무르시아, 비고 등 5개국 7개 도시가 유치의 향서를 제출했다.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는 7~8월 중 10일간 치러지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기맹 170개국 1만여명의 대학생들이 육상, 축구, 태권도 17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루게 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CGI 업체 광주에 등지

### 에네메스 등 3社 230억 프로젝트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6일 (주)에네메스(대표 최진) 등 3개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 형성 이미지) 업체와 2009년 3월까지 230억 규모의 CGI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6 디지털 콘텐츠 대상을 차지한 (주)에네메스는 오는 2009년까지 '산타 포획작전 2006' 등 80억원 규모의 3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2006년 안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2D 애니메이션 기업인 (주)제이엠애니메이션(대표 정미)은 '태극천자문' 등 50억원 규모로 4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화려한 휴가' '말아톤' 등 30여편의 영화에 참여한 (주)메타 파이프 아트 사이언스 앤 매직(대표 박용경)도 '슈퍼맨이라 불리운 사나이' 등 1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준비중이다.

진흥원은 이번 기업 유치로 340여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난해 문을 CGI글로벌 제작센터 등과 연계, 광주 CGI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북구 장학회 출범

### 2011년까지 80억원 기금 조성

(재)광주 북구 장학회(이사장 고재일)는 7일 북구청에서 장학회 현판식을 갖고 장학금 대상·지급기준·지급예산·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확정한다.

북구 장학회는 오는 2011년까지 5년 동안 구비 30억·기탁금 50억원 등 모두 80억원의 기금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된 장학 기금은 구비 출연 2억·기탁금 5억원 등 모두 7억원이다.

북구 장학회는 또 출향 인사와 학부모회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구민 1구좌 갖기 운동 ▲장학회 후원기업 인증서 교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 장학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학업 우수학생·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고재일 이사장은 "장학기금을 건실하게 조성해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구동체육관서 실버취업박람회

광주지방노동청(청장 권영순)은 7일 광주시 남구 구동체육관에서 378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2007 광주실버취업박람회'를 연다.

광주·전남 지역 업체인 ▲(주)파고다에프스 ▲창평우리병원 ▲신원전자정밀(주) ▲지에스컴(주) 등 66개 업체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신입사원을 뽑는다.

이밖에 일자리를 소개하는 직업정보관이 설치 운영되고, 취업클리닉에서 이력서 작성이나 면접기술 등 취업요령 등을 강의한다. 5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고, 이력서와 주민등록본을 지참하면 된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 중소 수출진흥자금 25억 융자

광주시는 25억원 규모의 수출진흥자금을 융자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있는 중소기업체로 2006년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연리 4.0%,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3억원 이내의 차등 지원한다. 오는 12~23일까지 광주시 경제정책과(613-3753)로 수출실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융자해준다.

시는 심사에서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2006년 이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참여한 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동산 자리의 사업화 된 高級路 전통한식관공점 유전. 전성특선, 11,400, 15,400, 19,400, 23,400, 27,400, 31,400, 35,400, 39,400, 43,400, 47,400.

담배뚝! 독소안녕~. 생약재 추출물, 신물질, 한근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원 개발. KBS, MBC, YTN, TV뉴스 및 각종 방송.